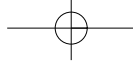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6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부 숙미회 50년을 지나고

- \_ 구술 녹취문
- \_ 숙미회 연보
- \_ 참고 문헌 목록
- \_ 원문 자료



###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가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학술연구기관입니다.

발행 가현문화재단  
주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9, 20층  
전화 02-418-1315  
팩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www.photomuseum.or.kr>  
이메일 [photo@photomuseum.or.kr](mailto:photo@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유지의, 김소희  
녹취초교 김지현, 허효빈  
디자인 한스그래픽, 김진득  
출력인쇄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3년 9월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원문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신 이명동, 이문강, 임범택, 주명덕 님과 동아일보사, 숙대신문사,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 2013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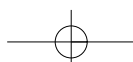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해당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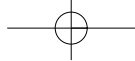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한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한미IT(주)  Hanmi Science Co., Ltd.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 목 차

4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6호를 발간하며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부 숙미회 50년을 지나고

7 구술면담 개요 및 일정

8 일러두기

— 구술 녹취문

11 제1차 구술면담: 숙미회의 창립

67 제2차 구술면담: 1980년대 이후의 숙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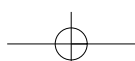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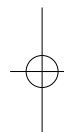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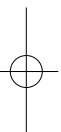
103 제3차 구술면담: 숙미회의 성장과 발전

— 관련 자료 소개

141 1. 숙미회 연보

154 2. 참고 문헌 목록

163 3. 원문 자료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6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립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가장 초기에 창립된 한국 대학 사진동아리 중 하나이자, 본격적으로 여성 사진작가들을 배출한 숙미회의 지난 50여 년을 기념하는 좌담회는 한미사진미술관이 자리 잡은 한미타워에서 2013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1차 인터뷰는 숙미회 창립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박영숙 선생과 초기 숙미회의 핵심 멤버였던 김테레사와 송영숙 선생 그리고 이 여대생 사진회를 15여 년 동안 지도한 주명덕 선생을 모셨다. 2차 인터뷰는 1980년대 초중반에 활동했던 이영숙, 김옥선 선생 그리고 90년대 학번인 김정은, 현정아 선생을 초치했고, 3차 인터뷰는 70년대 전후로 두각을 나타냈던 노희완 선생과 70년대 초중반에 숙미회를 이끌었던 문현심 선생 그리고 70년대 중후반에 활동한 김종희 선생을 초대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숙미회의 50여 년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다루는 연속 좌담회를 기획했지만, 좌담자들의 일정 때문에 2회와 3회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

1차 인터뷰는 숙미회 창립 과정과 당시 주요 사진계 인사들의 관계와 영향, 그리고 숙미회의 활동을 통해 당시 한국 사진계의 상황을 살펴봤다. 자부심과 역동성으로 뭉친 숙미회의 초기 역사는 이제는 한국 사진계의 중추로 자리 잡은 이들의 젊은 시절과 가난했지만 역동적이었던 1960년대의 한국 사진계를 회고하는 시간이었다. 2차 인터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의 대학과 사회 현실 속에서 숙미회의 위상은 어떻게 변모했으며, 확립된 정례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3차 인터뷰는 숙미회의 다양한 활동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동시에 숙미회를 지배했던 사진 미학적 의식과 공모전과 같은 당시의 사진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 사진계의 일원으로 성장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개인 이력을 청취하였다. 숙미회 50여 년에 대한 3회에 걸친 인터뷰는 그 채록 분량이 130쪽을 넘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한 대학 동아리의 역사를 넘어서 주요 사진인사들의 과거 활동, 당시 한국 사진계의 지형도를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숙미회 정기전 포스터, 리플릿, 동문전 도록 그리고 다양한 기념사진 등은 현대 한국사진사 기술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한미사진미술관은 인터뷰 채록과 숙미회 관련 이미지 자료들을 분리해서 출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편으로 한국 사진계의 과거 혹은 현재의 일면을 한 여대의 사진서클을 통해 들여다보는 계기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대학 생활사의 중요한 단면을 조망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 사진계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인물들의 사적 회고담을 듣는 시간이었고, 한국 사회의 중심부와 교류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1960, 1970년대 한 여자대학 동아리 활동이 한국 사회의 규모와 역량의 확대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숙미회의 50여 년은 분명 한 여자대학 서클이 간직한 역사적 시간이지만, 한국사진문화연구소가 이에 각별히 주목한 데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있다. 한 대학 동아리로서는 쉽지 않은 수의 다양하고 중요한 사진계 인사를 배출했다는 점이다. 사진 전문 화랑 트렁크갤러리 대표인 박영숙 선생, 여전히 사진 전시와 작품집 출판으로 노익장을 과시하는 김테레사 선생, 2013년에 10주년을 맞는 한미사진미술관 관장 송영숙 선생, 1970년대 초반 두 차례의 개인전으로 '여류' 사진가로 두각을 나타낸 노희완 선생, 숙미회 동문회 회장인 동시에 공예와 사진의 접목을 시도하는 문현심 선생, 현재 숙미회를 지도하는 김종희 선생, 한국 현대사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김옥선 선생, 사진 전문 잡지 『이안』의 편집장 김정은 선생, 『월간사진』의 기자직을 거친 현정아 선생 등, 많은 회원 분들이 한국 사진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사진과는 상이하고 이질적인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미회 활동을 계기로 사진을 자신의 소명, 직업으로 삼아 일가를 이뤘고, 이뤄가고 있기 때문이다. 발간사의 자리를 빌어 이번 인터뷰에 참여해주시고 간직한 과거의 자료들을 제공해주신 숙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3년 9월